

“시대에 맞는 복지제도 완성으로 조합원의 자부심 높여야” 주택자금대부 한도상향! 이동통신비 정기 지원!

‘21년 단체교섭 9대요구안 중 복지분야 요구안은 △ 대부제도 개선 △ 이동통신 구입비용 정기지원 △ 자녀교육보조비 확대 △ 휴양시설 운영 개선 △ 경조사비 개선 등 5개다. 노사는 본 안건과 관련 본회의 2회와 실무교섭 5회 등 모두 7차례 교섭회의를 개최했다. 그러나 사측은 본 안건에 대해 어떠한 것도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. 현재로서는 ‘올해 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위해 750억 원을 출연한다’는 것이 유일하다.

■ 주거안정성은 조합원의 워라밸 실현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복지제도다!

현재의 주택시장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기존 대부 상한인 1억 5천만 원으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. 대부 금액 한도를 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부조건도 완화해서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확보해야 한다.

■ 휴대폰은 업무용이다. 월정액 지원으로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!

조합원은 휴대폰을 업무처리 및 고객 응대 등 대부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. 그런데 성능저하 및 노후화로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.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은 회사의 당연한 의무이다. 이동통신 지원을 월정액으로 개선해서 조합원이 적기에 휴대폰 교체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-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자녀교육보조비 지급대상을 (5~15세)에서 (0세~18세)로 확대해야 한다.
- 낙후된 수련관을 대개체하고, 조합원의 요구에 맞는 고급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. ○ 제도도입 시기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조사비를 100% 상향하고, 지급대상을 부부사원 등 차별요소가 없게 확대해야 한다.

